

# ‘이동관 임명’...野 “대국민 선전포고” vs 與 “발목잡기 그만”

### 방통위원장 임명동의안 주내 제출 국힘 “정쟁 몰두” 민주 “수사 대상” 내달 중순 인사청문회 격전 예고

이동관 대통령 대화협력특보의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각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성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거듭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방송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은 어떤 공적도 말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조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 보이트도 검토하는 나는 질문에는 ‘아직 당이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하는 과정까지 같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대통령 대화협력특보의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때까지 이미 나온 내용뿐 아니라 여러 문제 제기과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계속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폭’ 자녀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이 후보자는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인신 청문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의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악성민원’의

전형”이라며 “이를 은폐하고자 거짓해명을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역공을 퍼부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쟁 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아무리 정쟁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자신들의 기본 책임까지 저버리며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국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화협력특보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임자를 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장악 시즌2”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라며 “민주당 정권 아래서 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몇몇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인지, 아니면 홍보 창구인지 모를 지경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 자녀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가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의혹에 관해서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검증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각종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 내정자 임명을 이용하던 민주당”이라며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美 “3국관계 새 장” 韓 “협력 중요한 전기”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 캠프데이비드서 첫 별도 3자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3자 공조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는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갈 외교적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7일 밤 개최한 열병식에 세르게이 소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두고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또 북한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됐든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확인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3국이 함께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 안보, 주요 지역·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참고자료에서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는 행사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뜻한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정상간 첫 별도 정상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한미일 정상은 다자 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3자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수도 워싱턴DC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휴양지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내달 초 ‘최소 일정’ 휴가 검토

### 대통령실 참모진 구체 일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최소한 일정으로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참모진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여름휴가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따져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직후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 대응에 전념하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휴가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리할 국정 현안이 많아 (대통령) 휴가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간단하더라도 쉼 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8월이 다가오면서 최소한 일정으로라도 대통령 휴가는 필요하다는 게 참모진 중론이다.

대통령 휴가는 공식사회 휴가와 연동되기 마련이고 민간에도 영향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도 짧게라도 휴가를 다녀오는 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참모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휴가는 민간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휴가 장소를 두고서는 여러 안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너의 광주를 포스팅해줘”

광주 여행스토리 공모전 | 일반부문

**접수기한** | 9. 22.(금) 24:00 까지

**홈페이지** [광주여행스토리.kr](http://광주여행스토리.kr) 접수 ▶

**공모명** | 광주 여행스토리 공모전 일반부문

**공모내용** | 광주의 모든 관광자원 X 스토리  
- 광주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  
- 구전·설화·인물 등 마을단위 숨겨진 이야기 등

**참가자격** | 제한 없음

**공모형식** | 스토리 / 웹툰 / 숏폼(릴스, 쇼츠, 틱톡 등) / 기타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 응모 (광주여행스토리.kr)

**시상금** | 대 상 - 1팀 200만원  
최우수상 - 4개 부문 각 1팀 100만원  
우수상 - 4개 부문 각 1팀 50만원  
장려상 - 10팀 20만원

전문가 부문도 있어요!

문의) 010.3908.5670 운영사무국